

# 성도의 빛 9 1970

이달의 특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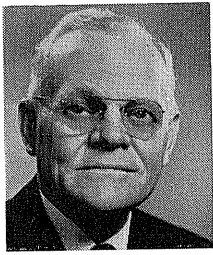
최근에 임명된 총관리 역원, 2 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앤더슨  
십이사도 보조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십이사도 보조  
윌리엄 에이치. 베넷  
십이사도 보조







# 영감의 멧세지

매리온 지. 롬니  
(12사도 정원회)

1831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교성 68 : 25, 26) 세상은 바야흐로 악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의로움에 대항하여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청소년이 이러한 총력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나 간악함과 사회악의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악이 창궐하고, 거짓 술책이 온갖 거룩함과 의의 원리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러한 사탄의 횡포를 대적할 수 있는 굳건한 힘을 가지려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가정에서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권능의 부름을 받은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자기의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정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또한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를 진리와 빛으로”(교성 39 : 40)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권 소유자는 가정 복음교사로서의 직분도 기꺼이 받아 들여서 충실하게 방문하고 권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가정에서는 가족을 선도하여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악마의 흥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교회는 일어서서 그 빛을 만방에 비추어 표준이 되게”할 것입니다. (교성 115 : 5)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1

발행일 1970년 9월 1일  
통권 제62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제6권 제9호 순서 1970년 9월호

□근본이 되는 진리 조셉 필딩 스미스.....	1
<b>최근에 임명된 총관리 역원</b>	
보이드 케이. 패거, 12사도 정원회 제이 엠. 토드 .....	2
조셉 앤더슨, 12사도 보조 앨버트 엘. 조벨 2세 .....	4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12사도 보조 메이블 존스 가봇.....	5
월리암 에이치. 베닛, 12사도 보조 윌리엄 티. 사익스 .....	6
프레다 요안 젠슨 리-이루어진 약속 메이블 존스 가봇.....	7
첫째, 신앙 스티븐 아프렉.....	11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교통 존 에이치. 반덴버그.....	13
하루를 행복하게 캐롤 씨. 스미스 .....	15
루돌프라는 염소 로세리 더블류. 도스 .....	16
리마 빈스 짐 자딘 .....	19
하나님의 완전한 갑옷을 입으라 헤롤드 비이. 리 .....	20
너희의 태도가 곧 너희의 갑옷이라 닐 맥스웰.....	22
오늘과 영원을 위하여 더블류. 클렌 하몬.....	23
번영에 대한 물물경의 경고 존 더블류. 베니온 .....	26
계획된 결과 블레인 엔. 리 .....	28
□선교부장 메시지 : 교회의 청소년에게서 서 현보.....	30
□내외 소식 .....	31
□진리의 말씀 : 방향을 바꾸지 않을진대 리차드 엘. 이반스.....	표3

표지 설명 : 지난 4월 6일 교회 본부에서 있었던 연차대회에서, 네 형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최근에 임명된 총관리 역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본이 되는 진리

대판장 **조셉 필딩 스미스**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그 근본이 되는 진리를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님께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그 자신이 설명하는 경위대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세우고, 하늘의 권세이며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압니다.

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방황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으며, 어두움에 휘말리도록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시의 영으로 인도되며,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에게 허가하시는 영감의 뜻으로 인도됩니다.

복음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 교회가 변하지 않는 근본이 되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므로 변해서는 안되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법을 믿습시다만, 인간이 구원받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채택해 주신 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비록 저 나뭇의 계획을 수렴하고 학설을 정리하며, 이상한 일과 독특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기본이 되는 가르침은 피하지 못하며 던져 버리지도 못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은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독생자로 믿으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불사 불멸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단 한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출생의 권리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 때문에 그는 인간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가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님께서 만사를 질서 가운데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체제를 갖게하신 것, 즉 교회의 조직을 허가하신 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명하신 바를 그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므로 만사가 완전해 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교리나 계획이 추호의 어김도 없이 완전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한번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에 계시 될 것이 있으며,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전달된 계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배워, 결손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시도록 계획을 세워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계획에 따를 때, 교회에는 사악함이 일지 아니할 것이며,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던가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교회 회원간의 마음으로 냉대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하나로 뭉쳐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한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주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영은 그의 백성들 위에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

# 최근에 임명된 총관리 역원

## 보이드 케이. 패커

### 십이사도 정원회

제이 엠. 토드

● 보이드 케이. 패커라는 이름은 교회 회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45세의 나이로 이미 9년의 총관리 역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 아주 예리한 유우머로 연결된 조용하고 정연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성도면 누구나 즐거운 미소와 흡족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나이에 비해 탁월한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십이사도 정원회의 전원이 다 그러하듯이—보이드 패커 장로는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남이 배울 수 없는 자리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약력을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청년기를 유타주 브리검 시에서 보낸 그는, 로간 신전에서 도나 스미스와 결혼하였고,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직 20대의 청년으로 시 평의회와 시 평의회로 6년간을 봉직했으며, 시에서 마려한 봉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교회 세미나리 학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37세가 되면서 바로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인품이나 업적이나 성품을 한두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그가 말씀하신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 그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봄이 좋을 것입니다.

“몇년 전에 나는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표를 몇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등이었습니다. 첫째로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의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나의 삶, 나의 기호, 나의 임무와 직결되는 바탕이 된다고 믿었고, 사회 참여의 기회도 이러한 사상을 중심으로 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곧 완전하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계획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할 때, 나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경전을 상고하고 지도자의 말씀을 들읍니다. 교회는 나의 지식을 얻는 창고였습니다. 적어도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가정은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배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나는 세상 어느 곳 보다도 가정을 택하겠습니다.

패커 장로와 그의 부인(“나는 기쁘게 그가 단정한 집에 있어서 온전하다고 하고 싶습니다”)은 슬하에 아들 일곱,

딸 셋의 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이들의 작은 농장은 그대로 안식처요, 쉼터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오히려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을 중시한다면야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이 차지하는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 정신과 책임감, 협동, 남을 존중하는 법 등을 가르치려 할 때는, 훌륭한 지도자를 모신 대가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차차 자라서 만들고, 꾸미고, 응용하고, 절약하는 법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혜택도 더 커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집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생활 여건에서 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라 더블유와 엠마 켄슨 패커 사이의 열 한 자녀 중 열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1924년 9월 10일에 납읍니다) 패커 장로는 대가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대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 이외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다른 자격이 내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을 훌륭하게 부양하겠다는 뜻을 가지셨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족—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으로부터 배운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분들로부터 더욱 위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의 두번째 목표는 선하게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선하게, —무엇에든지 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상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에 대하여 선한 아들이 되기를 바랐으며, 나 스스로가 착한 아들이 되지 않으면 착한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식구를 더 가지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선히 남에게 베풀기를 주저하는 것은 감히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그분 개인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인품을 엿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숲 속을 거닐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정말 알지 못하네” 칠십일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한 분인 에이. 디오더 터틀 형제는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보이드 형제는 자연을 사랑하시지. 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특히 새를 사랑하신다네. 참새를 즐겨 관찰하시는데 새소리를 듣거나 날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그 새가 어떤 새인가를 알아내신다네. 새에 관하여, 새들의 이름과 버릇 등을 낱알이 아시고, 즐겨 새를 그리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시지. 그 솜씨가 또 보통이 아니시거든. 아마 자연 과학자가 되셔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시고, 자연 화가가 되었어도 훌륭한 화가가 되셨을 걸세. 그분이 사셨던 어떤 집의 벽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새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

그분을 잘 아는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특징적인 성품은 만물을 아름답게 본다는 점입니다. 그분이나 그분 가족은 그림과 나무와 나무가지 그림의 모두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분은 자기와 관련된 모두를 특별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고 즐겁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그분의 친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교회 학원 관리를 맡으셨을 때, 통찰력이 깊으신 연로하신 교사 한분이 ‘그분은 이제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명철한 두뇌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사리를 명백하게 파악하시고 사물의 원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은 철학의 개념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도,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그 모든 지혜가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모든 말일성도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패커 장로가 깊게 믿는 비결을 “교회내에는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대로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나, 주님의 길에 맞추어 일하면 결과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주님의 방법인지를 모르면서도 이를 주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합니까? 간구할 때에는 어찌서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기도를 늘 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시며 기도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분이십니다.”고 동료 한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리 능력은 그 사람과 운영 능력과 지도력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면에 패커 장로는 탁월한 편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분을 잘 아는 친지 한분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목적 의식이 뚜렷한 신념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휘하의 사람들을 알뜰하고 따뜻하게 대담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위임하실 때에는 완전히 맡기시기 때문에 일을 위임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대신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보다 창의적이고도 책임있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행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패커 장로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다른 분들의 말씀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상이 최근에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의 약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총관리 역원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곧 주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것이 합당한 일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



앞열 좌로부터 : 패커 장로, 도나 패커 자매, 엘든, 스펜서, 로렌스, 뒷열 : 로렐, 랫셀, 데이비드, 알렌, 게일, 캐드린. 베모 안의 케네드는 선교사업 중이다.



앞열 좌로부터 : 진 에이. 앤더슨, 앤 카드, 엘레인 앤더슨 카드, 마이클 (아래 앉은 사람), 레인 카드, 조셉 장로와 놀마 앤더슨 자매, 스캇(어린 아이), 쥬디, 비이. 로버트 피터슨, 뒷열 : 바바라, 쉐리, 조셉, 조셉 로버트 앤더슨, 윌리엄 카드, 뱃 앤더슨, 피터슨, 데이비드, 킴버리(어린 아이), 캐디 라이트.

# 조셉 앤더슨

## 십이사도 보조

앨버트 엘. 조벨 2세

● 조셉 앤더슨은 1889년 11월 20일 쏘트레이크 시에서 스코트랜드의 이민인 조지와 이사벨라 웨스턴 앤더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철도원이었습니다. 유타주의 로이 와드에서 어린 조셉은 초등 협회의 서기로 지지를 받았습니 다. 이것이 그가 교회에서 맡았던 수없는 서기 직책중 최초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분은 서기라는 신뢰와 정확을 기해야 하는 직책을 맡아 이를 능률적으로 책임있게 해냈습니다.

그는 1905년 유타주 옥든의 웨버 아카데미를 졸업하였으며—당시의 총장은 고 테비드 오. 맥케이 전 대관장님이었습니다—그는 1911년 10월에 스위스—독일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는 대회 회장 및 스위스—독일 선교부의 서기로 봉사했고, 1912년 6월에서 1914년 5월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1921년 그랜트 대관장님의 서기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상호 향상회 6월 대회에서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대독해 달라는 요청으로 태버나클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초청에 응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 다만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얼마후에 그랜트 대관장님이 그의 65회 생일을 맞아 1921년 11월 22일 어셈블리 회관에서 말일성도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로 되어 있고 내가 가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

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내 솜씨에 놀라셨습니다. 나는 1922년 2월 1일에 그분의 서기가 된 이래, 그분이 작고 하실 때까지 23년 동안을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그분과 가졌던 친교보다 더 두터운 친교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아버지와 아들 같았습니다.”

그분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서기로 일하시던 기간에 그분은 대관장단의 서기 일도 맡으셨으며, 1945년 그랜트 대관장이 돌아가신 후에도 대관장단의 서기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그분은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일하셨으며, 바쁜 일을 하면서도 대관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하고, 또 주례로 쏘트레이크 신전에서 갖는 대관장님과 사도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나는 웨버 아카데미의 학생 시절부터 맥케이 대관장님과는 가까운 친교를 맺었습니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님 만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비존과 성품이 위대한 분이셨으며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셨고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나는 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경전과 복음에 박식하신 점과, 교회 일에 대한 그분의 헌신적인 수고에 찬

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만인이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백성들에게 오직 회개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임무요, 책임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주가 택하신 예언자입니다."

앤더슨 장로는 1915년 11월 11일 솔트 레이크 신전에서 놀마 패터슨과 결혼했습니다. 놀마 패터슨은 1942년에서 1961년까지 청년 상향회 총본부 임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슬하에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복된 가정입니다.

앤더슨 자매님은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내보다 남편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나는 그분에 대하여 다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어느누구에게도 아직껏 불친절한 말씀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남에게 자상하셨으며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그분의 성품은 굳은 신앙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인내, 관용, 이해심 등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과실에 대하여 너그럽습니다. 그분과 젊은 세대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즐겨 자기들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유대를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갖는 즐거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앤더슨 형제가 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으시자 헤롤드 비. 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총관리 역원의 세계로 아무도 갖지 못한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가져왔으며, 아무도 그의 것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헤롤드 비. 리 부대관장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그의 견해를 정리하셨습니다. "그의 수고는 형제들의 인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까지도 받은 것이며, 이제 영감의 뜻으로 조셉 앤더슨 형제가 부름을 받으므로써 그의 재능은 온 교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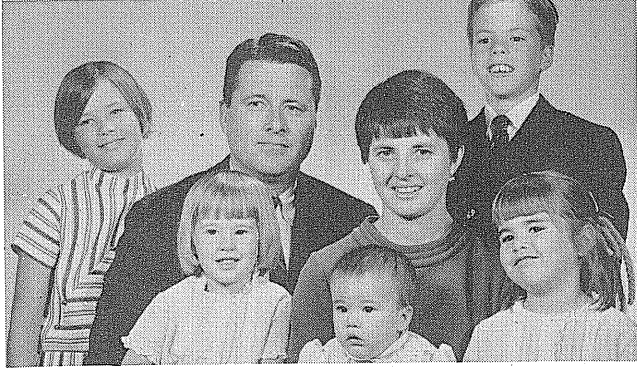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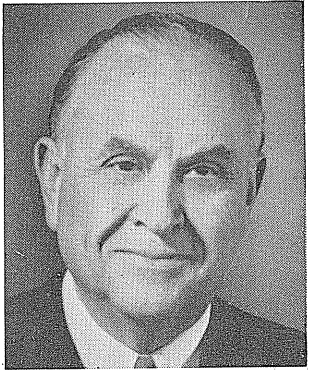
#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 십이사도 보조

메이블 존스 가넷

●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장로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함께 조화

하는 법을 배우고—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의 필요와 소망과 포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뒷열 좌: 루비 헤이트 자매와 헤이트 장로. 뒷열 우: 데이비드와 앤젤라 보웬 헤이트 자매 사이에서 난 다섯 자녀. 앞열 좌: 존과 캐렌 헤이트 허스맨의 다섯 자녀. 앞열 우: 로버트와 도로디 허스트 헤이트와 그의 두 자녀.



이제 새로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으신 이분에게는 사람들과 조화하는 일이 그의 해야 할 일일뿐만 아니라 그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일하기를 좋아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의 생애를 거의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나, 해군에 있을 때나, 사회봉사에 있어서나, 교회 일에 있어서나, 모두 한가지입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헤이트 장로는 1906년 9월 2일 아이다호주 오클리에서 헥트 켈럽 헤이트와 클라라 조셀핀 터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0년 유타에서 루비 울슨과 결혼하였고, 자녀가 셋—아들 둘, 딸 하나—손자녀가 열 셋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단란한 가정입니다.”고 헤이트 형제는 말씀하십니다. 헤이트 자매, 세 자녀, 그리고 몇몇 손자가 월요일 아침 태버나클에 참석하여 헤이트 형제가 교회 직책을 맡는 일에 함께 지지했습니다.

헤이트 장로가 교회에 기여한 업적은 꽤 다양하고도 재미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의 감독단의 일원이었고,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할 때에 스코트랜드의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도 봉사하셨으며; 그 부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 일을 즐겁게 해냈습니다. 스테이크의 부장과 그의 보좌들, 그리고 감독 여러분을 만나는 일은 꽤 즐거웠으며, 나는 그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논하며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형제들과 대화하며 저들의 필요와 걱정거리를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통 혹은 대화의 문체란, 우리들의 뜻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유타 주립대학교 농과대학 체육 감독으로 일하던 유타의 로간 시절로부터 그의 대인 사업은 시작됩니다. 졸업 후에 그는 소매상을 했고, 당시의 대단한 불경기를 극복

하고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헤이트 형제가 그의 모친에게서 배운 생활 철학, 종교의 표준에 입각한 그의 생활 방식 등이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헤이트 형제를 따로 불러 승급을 발표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지역 책임자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제가 아이다호의 작은 물몬촌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생활 표준은 이 회사의 직원들과는 좀 다릅니다.”

“나도 잘 아네”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자네를 승급시키는 걸세.”

헤이트 장로는 자주 교회 안이나 밖에서 많은 친구를 갖게 된다는 그의 축복사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또 너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알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어려운 교훈을 배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봉사의 울타리를 치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는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의 생애의 대부분이 주님과 이웃에 봉사하는 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나 목적이나 소망도 봉사로 바탕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바르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 교회 및 사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의 봉사하겠다는 소망은 이제 새로운 직책으로 그의 탁월한, 실제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조직력 및 지도력을 가져와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봉사의 문제일 뿐입니다.”라고 헤이트 형제는 말씀합니다. “봉사의 문제는 이미 모든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나는 교회의 직책을 맡고 일하는 가운데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

## 윌리엄 에이치. 베넷

십이사도 보조

윌리엄 티. 사익스

● “나는 인간이 때로는 승리에서 보다는 패배에서 삶의 교훈을 더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말씀은 승리로 다져진 삶을 살아 온 윌리엄 에이치. 베넷에게는 더욱 깊은 뜻을 준다. 캐나다의 알버타 농장에서 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나서서 이제는 미국 학자의 존경을 받게 된 육척 일촌의 베넷에게 패배라는 말은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가 패배로 교훈을 배운 것은 열 다섯살 때 학교를 그만둔 때였다. 오랫동안 계속된 기근으로 농사를 망쳤고, 그



앞열 좌로부터 체큐린, 베넷 장로님, 캐밀 케이, 주리, 데보라. 뒷열 : 윌리엄 브렛포드, 매리 앤, 패트리샤 베넷 자매님.

런 상황에서 장기간 결석을 해야했던 그는, 학교 성적이 부진한 것에 낙담하여 학교를 그만 둔 것이다. 그후 이년이 지나서, 그는 당시 레드브리지 스테이크의 부장이시었던 휴 비. 부라운과 후에 계보 서기가 된 그의 삼촌 아치밧 에프. 베넷의 영감적인 말씀에 감동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사탕무 밭에서 사탕무를 한 아름 안고 밭 끝에 까지 걸어가서 문득 나의 장래를 생각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 학교로 돌아가서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에이치. 베넷은 1910년 11월 5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윌리엄과 메리 워커 베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치밧 에프. 베넷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상 중에 인디안의 핏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베넷 장로는 늘 교회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일학교, 상향회, 신권 활동에 열심히 참석했고, 오래도록 동부 카체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일했다. 또한 신권 선교사 및 복지 위원회 회원으로도 봉사했으며, 로간과 카체 지역 대표로 일하다가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베넷 장로는 1950년 4월 12일 로간 신전에서 패트리샤 준 크리스찬슨과 결혼하였다.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

베넷 장로는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인의 문제를 진심으로 염려한다.

교육자요, 또한 종교인으로서의 그는, 많은 시간을 젊은이

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바쳤다. 그는 늘 자녀들에게 높은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는 오늘날의 젊은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옛날의 젊은이들보다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돈된 것처럼 보이나, 나는 이 세대의 젊은이가 어느 세대의 젊은이 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노년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산 인생은 인생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도나 관심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전진해야 하며, 사람이 성장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넓고 깊어 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명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넷 장로는 복음의 이상을 지켜 생활하므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크게 일깨워 준다. 어떤 사람은 그를 이렇게 말했다. “윌리엄 베넷은 완전히 교회에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는 늘 자기의 진심을 표명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대단한 반대 세력에 부딪힐 때라도 자기의 믿음의 신조를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로 신권의 형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특권이며 기쁘이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나를 겸손하게 느끼게 하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겸손과 성실이 역력히 엿보인다.

윌리엄 에이치. 베넷에게서는 패배와 자기 희생, 그리고 아직 젊었을 시절에 설정한 목표에 결의를 가지고 도전했던 데서 얻어진 힘과 결양이 엿보인다. ○



# 프레다 요안 젠슨 리 이루어진 약속

메이블 존스 가뭇



●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한 마디씩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어 내려가던 그는 잠시 멈추고 나서 “오, 참으로 진리야! 얼마나 참된 것이냐 말야!” 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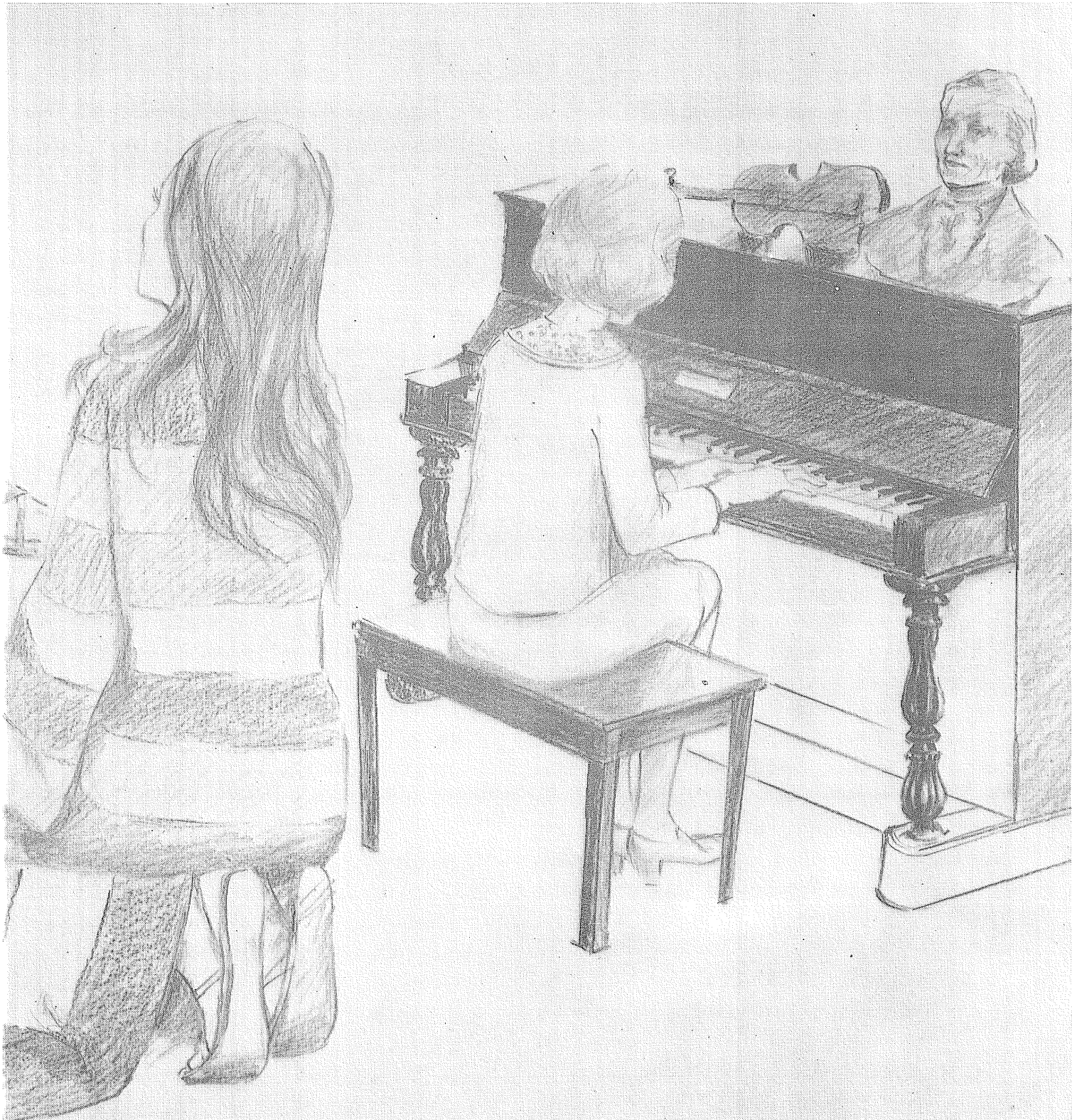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의 제일보좌의 아내인 헤롤드 비. 리 여사는 푸른 색과 흰색 양모로 꾸며진 긴 다이벤에 앉아 있었다.

생각과 행동이 늘 우아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것이, 1963

년 6월 17일 리 장로와 결혼한 프레다 요안 젠슨 여사의 성품이다. 그들의 가정은 함께 독서하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예술을 즐기는 이들의 교양과 품위를 말해주고 있다. 리 자매님은 그들이 결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붉은 비단과 세로판지에 포장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리 장로의 결혼 선물인—피아노를 자랑스럽게 손가락질 해 주었다.

리 장로와 리 자매님은 모두 피아노를 즐겨 치신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음악의 공헌은 컸습니다. 물론 음악중 아름다운 곡 몇개는 아마 영원토록 남을 것





입니다.” 리 자매의 말씀이다. 1969년 6월 청년 상향회 백주년 대회에서 리 자매는 교회의 청소년에게 기여한 음악 공로자로서 금상을 받았다.

음악은 언제나 리 자매의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아노 학습을 받았다. 일곱 살 때에는 클레이 레이드 교수에게 사사했고, 그 후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안토니 씨. 런던 교수에게 사사했다. 그의 음악열은 매년 높아졌었으며, 오늘날 그의 레파토리는 그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에스트레리타”를 비롯하여 몇몇 현대음악과 고전이 수도 없이 많으며, 그는

쇼파의 것을 특히 즐겼다.

리 자매는 진장하신 말일성도 부모님이 사랑과 문학과 음악과 그밖에 모든 선한 것을 함께 나누던 어린 시절의 유타주 프로보 시에서의 생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보석 가공 기술을 가져온 리 자매의 아버지 주리아스 켄슨은 해군 대위였으며, 그는 그의 세계 지리 지식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머니 크리스틴 에이치. 두에센 켄슨으로부터 그는 가사와 여인의 미덕과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남에게 배

푸는 법을 배웠다. “라이스 푸딩과 애플 파이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나 이웃에 가져다 주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프레다 요안과 그의 언니 엔다(제랄드 케이지어 여사)와 오빠 제이 디. 켈슨은 “주님께 가까운 생활을 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 벨이 울리고 튀어서 문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리 자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리 자매가 제일 잘 만드는 소고기 접이 늦은 저녁 거리로 알맞게 끓고 있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리 자매는 예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는 했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10:40-42 참조) 리 자매는 또 이렇게 부연하였다. “나는 가끔 자신에게 내가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를 묻습니다. 또 나는 여자들 중에 집지기는 얼마나 되고, 주부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집안 일에만 아주 과묵합니다, 아니면 마리아 처럼 좋은 편을 택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가치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베풀느냐?’고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원과 가정이 어떻게 보일것이나?’로 염려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의 사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열의가 엿보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간을 내어 듣습니까? 작은 아이들의 삶의 모양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특권은 또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합니까?”

그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프레다 요안의 조혼의 계획은 비극의 종말을 가져 왔으나 그는 그가 양녀로 들어간 제니엘(돈 라스무센 여사)의 가정과 그의 어린 조카 제랄딘(루이스 에이치. 칼리스터 여사)과의 생활에서 사랑을 찾았다. 리 자매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느끼던 이기적인 사랑은 노인에게나 어린이에게로 터져 나왔다. 예를 들면 그는 동료 초등협회 본부 임원의 92세가 되는 어머니에게 꽃을 보낸다던가, 카드를 보낸다던가, 혹은 전화를 걸어 드린다던가 하여 자기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정성은 노년에 이른 그의 양부 윌리엄 디. 구레 축복사에게도 펼쳐졌다. 리 장로님과 결혼하므로써 그의 사랑은 리 장로의 자녀들에게로 연결되었고 헬렌(엘. 브렌트 고트 여사)과

마린 윌킨스(현재 사망)와 리 장로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그의 모습을 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에게는 많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이 비결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한없이 즐겁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한다던가, 그들에 관한 지식을 정돈하고 응용하는 재주는 천부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이해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에게 끊임 없이 이해의 손을 뻗칩니다.”

프레다 요안 리의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이라던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유우머는 그와 유대를 갖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브리감 영 대학에서 교육학의 학위를 받은 뒤 요르단 교육감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국민학교 과정의 교사로 활약하였다. 그는 그후로 유타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컬럼비아 대학 등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그의 탁월한 인화 능력은 교사와 학교 관리, 인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로서 그는 교육계의 명망을 한몸에 지니게 되었다.

어린 아이들의 교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관리자로서 프레다 요안 리는 아이들을 알고 보살필 수 있는 자라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토록 소중한 성장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의 결핍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리 자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주시는 한 우리도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랬듯이 아이들과 교사를 위하여 모두를 바쳐 헌신하였다.

그는 청년 상향회와 초등협회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젊은이를 위하여 많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는 그 율법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삶의 계획을 늘 염두에 두고, 리 자매는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늘 나 스스로 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자. 힘을 다하여 봉사하자. 교회와 하나님께 가까운 생활을 하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로 관리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의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의 삶에 호홉과 넓이와 깊이를 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

# 첫째

# 신앙

스티븐 아프렉



● 우리는 고도의 기술 문명과 인간의 생활을 흥분시키는 도전과 의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논리와 사실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논리의 세계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제일 원칙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아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복음의 제일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 \*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대학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열 일곱살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청년 시절에 공부한 원리를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인품과 학식을 존경했던 교수들은 나에게, 내가 종교에 관하여 공부한 것들은 한낱 조상의 전언이나 전설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며, 종교란 사망으로 종결되는 너무도 분명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도피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논리 정연하게 역사, 과학,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경전을 들어 가면서 내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내가 갖지 못한 체험의 세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계시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인간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싸움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중립 지대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생에서 남의 간증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나 스스로가 과연 하

나님은 살아 계시고 복음이 참된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때를 맞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래 숙고한 끝에 나는 성약을 하기로 결정했고, 주님께 두달동안 성의를 다하여 간구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나는 이 두달이라는 시간이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첫번 시도는 헛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가 존경하던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는 빠른 대답, 즉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속의 느낌이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 속에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나의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무엇인가 평범 이상의 것이 필요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물론경을 읽되 역사, 과학, 고고학, 기타 그 내용과 부합되는 경전을 상고하면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꽤 효과적이었고, 교수들도 이러한 체계적인 나의 연구에 대하여는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차차 나는 확신을 얻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나 스스로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학적인 연구는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했고, 나는 물론경의 백성과 역사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으로 사실적인 기록이며, 나아가서는 놀랍도록 재미있는 기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진지한 연구에 대하여 스스로 보람을 느꼈으나, 내가 탐구하던, 남들이 내게 이야기하던 그 느낌은 얻지 못한 채였습니다. 나는 왜 내가 그 느낌을 얻지 못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가? 정말 나는 실



망하였으나 두달 동안 계속하여 연구하겠다고 한 나 스스로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생각으로 나의 시도를 알려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니는 어머니로의 어떤 영감이 작용했었나 봅니다. 어떤 날 밤, 어머니는 내가 잠자리에 든 다음 내 방으로 오셔서 내가 무엇인가로 고민하고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도 더는 감추지 않고 내가 구하는 대답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나의 질문을 받아 오히려 반문으로 대답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곧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만 마음을 상한 채 조금은 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느낌이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것은 시험관에 집어 넣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



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함을 압니다. 그리고 논리의 세계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가장 진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두번째 질문은 “어머니에 대한 나의 사랑이 간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령을 통하여 어머니께 알려진 지식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지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토록 연구를 하게 된 최초의 시도 및 계기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였고, 사람은 신실한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계속해서 연구하되 금식과 기도로 구하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간증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기도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진작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내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해답을 구하려 했기 때문이며, 주님의 방법을 경시했던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얻겠다는 결심이 컸으므로 나는 복음의 제일 원칙인 신앙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내게 보여달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살아계시고 물론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달라고 강요했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금식은 배웠습니다. 나는 금식이 자제력을 기르는 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경전을 읽다가 엘마의 말씀에 마음이 갔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하였음에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 (엘 5:45, 46)

나는 엘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엘마가 그런 말씀을 내게,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것이 내 주변에 있고, 나의 시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로 즐거웠습니다. 이때 나는 방황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중에는 주일학교나 성찬식, 상향회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학위를 얻으려면 학업을 계속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 일에 게을렀던 스스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참된가를 알아 보려 했었고 간증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했으나 이제야 내가 늘 깨어있지 않았으며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시도가 얼마나 언급한 씨를 심는 이야기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엘 32 : 26—43 참조) 그것이 내 안에서 머물렀으니 좋은 씨였을 것이고, 나의 신앙은 자랐습니다.

그후로 몇주가 지난 다음, 나는 신앙과 겸손으로 주께 간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이 참됨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시현이나 계시가 없는 것으로 나는 다시 실망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복음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몰랐고 의심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누워서 지난 몇달 동안의 일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나는 약속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인생과 죽음의 필연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 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 들이고 나의 영의 아버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드디어 축복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내게 지상의 사명을 맡

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상에 보내시어 일을 맡기실만한 이유를 가지셨다면, 사망이란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이르게 하는 과정일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돌보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물론경이 그분의 말씀이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를 좁게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교수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정 주님은 물론경의 아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꾀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언음에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언음이 유익할 것이나.”(나이 9 : 28, 29)

신앙은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

## 관리감독이 부모에게 주는 말씀 :

# 교 통

# 교 통

# 교 통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5, 28)

어떻게 하면 부모는 이토록 위대한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사랑과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가장 필요한 여건 중의 하나는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들이고, 회개의 교리와 신앙, 기도, 주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먼저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회개의 교리를 예로 들어보면, 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혹독하게 책망하고 거부하는 태도로는 이 원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되 서로 교통하지 않는 버릇을 갖는 수가 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발버둥질 하는 십대는 흔히 부모에게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가능한 온갖 교통의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를 연결해 준 매일 아침의 신문 배달 드라이브의 효과를 감사하는가 하면,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 아침이면 차를 집에 두고 아들과 함께 걷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화를 통하여 밀접한 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는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래고 잘못을 지적할 때도 역시 부모는 자식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십대들은 자주 야단맞을 일이 끔찍해서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부모가 듣고 좋아할 것만을 이야기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가족간의 대화의 기회를 잃습니다. 물론 가족 전부가 텔레비전을 보기는하나 그 내용이 토론의 주제가 된다던가 하는 이외의 경우에는 아무 말도 없이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가족중에는 저녁 식사 때를 가족간의 교통의 시간으로 정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사려 깊은 부모의 질문이 유도하는데 따라 멋있게 정리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제거하며, 가족 모두의 기쁨과 배움을 열어 주는 시간이 됩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합당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어떤 소년은 지부장과의 접견을 통하여 자기에게 내리는 “지시에 대한 반발심”이 이렇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의적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견을 계속했던 지부장은 그 소년의 모친이 주일 아침 일찍 그를 깨워 신권회에 나가라고 지시하고 주일학교, 성찬식의 집회에 나가도록 지시하는데 반발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서로 이야기를 한 끝에 결국 그 소년의 이러한 반발을 소년에게 지시를 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므로 야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회원과 결혼한 그는, 교회에 참석하기 보다는 남편과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집에 있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십대의 자녀들이 자기가 그 나이에 받았던 것과 같은 종교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노

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소년이 바랐던 것은 어머니가 함께 교회에 나가 자기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마태 19:19)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지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외의 사람인듯 체를 해가면서 그것으로 남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참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족함대로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가공의 자기를 내세우는 꿈의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터가 마련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비판을 받지 아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태 7:1)고 하셨습니다. 말일성도의 교육자인 스테반 알. 코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비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젊은이들은 적대 행위, 반발, 역습 등을 감행하게 마련입니다. 일단 사태가 이 정도로 발전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대화의 문은 닫혀지고 자기들을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는 고집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자기의 진심을 부모와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기 연배의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겠다는 경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는 자기와 같은 조건하의 동연배들과 이해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손에 대던 갈등이 많던 젊은이가 자기의 심정을 녹음 테이프에 명확하게 담아놓고 최근에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심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토로할 수 있었던들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부모나 지도자가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연결하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젊은이를 위한 그보다 더 큰 봉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해를 보내면서 젊은이들과 직접 대하지 않고서는, 십대와 통화의 선을 잇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와 훌륭한 유대를 갖는다는 가장 중대한 일을 잊을 만큼 바빠서는 안되겠습니다. ○



# 하루를 행복하게

캐롤 씨. 스미스

● 매리 앤은 다섯 살이었다. 그는 엄마하고 밖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멋진 식당에서 점심을 했고, 지금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참으로 즐거운 날이다. 엄마와 매리 앤은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다. 매리 앤은 정말 마음 속으로 행복을 느꼈다.

엄마가 리본을 구경하고 있는 동안 매리 앤은 상점 선반에 놓인 플라스틱 컵과 쟁반을 갖고 조용히 놀고 있었다. 그 작난감은 아주 작고 예뻐서, 매리 앤은 그것들이 갖고 싶었다.

“매리 앤, 이리온 이제 가자!” 엄마가 불렀다. 매리 앤은 얼른 작은 컵과 쟁반을 상자 속에 도로 집어 넣고 그중 컵 한개를—정말 예쁜 컵—갖고 싶어서 얼른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상점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물건에는 신경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매리 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상점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차에 올라 주차장을 빠져 나왔다. 매리 앤은 아주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엄마는 “우리 종알종알 작은 상자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라고 말씀하셨다.

매리 앤은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는 만사가 즐겁지를 않았다. 온종일 행복하고 즐겁던 기분은 모두 없어졌다. 그는 이제 외롭고 불안했다.

매리 앤의 손이 작은 컵을 움켜 잡은 채 주머니 밖으로 움직였다. 손가락을 늘어 컵을 잡은 매리 앤은 엄마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친척히 빨간 코트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엄마가 급히 물으셨다.

매리 앤은 얼른 주머니에 들었던 컵을 꺼내 엄마에게 보였다.

“너 그거 어디서 났니?”

매리 앤의 입술은 떨렸다.

“매리 앤! 상점에서 집었니?”

매리 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가슴을 눌린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는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고 대답했다.

엄마는 다시 차를 돌려 상점으로 물었다. 엄마와 딸은 함께 상점으로 들어갔지만 엄마는 뒤에 서서 딸이 상점 점원에게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매리 앤은 엄마를 돌아다 보았다. 엄마가 서 계신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그는 용기를 얻어 해야 할 일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선반 위에 컵을 꺼내 놓았다. “제가 이걸 집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 같지를 않았다.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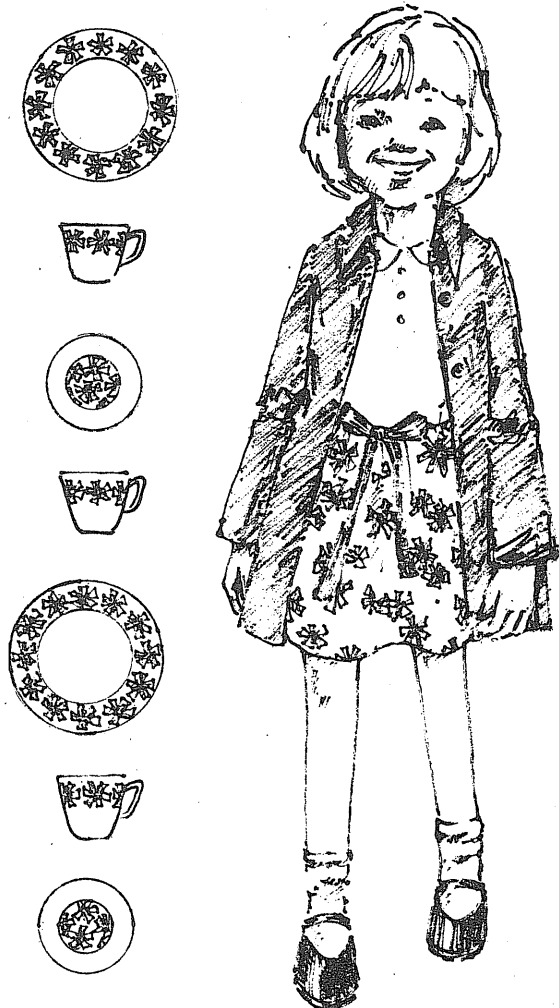
점원은 엄마를 쳐다보고 나서 매리 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 그는 조용하게 말했다. “우리 상점에 다시 물건을 사러 오너라.”

매리 앤의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짐은 벗겨졌다. 그는 점원에게 미소를 보였다. 엄마와 차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미안해요, 엄마, 즐거운 날을 망쳐서요.” 매리 앤이 말했다.

“매리 앤” 엄마는 그를 끌어안고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남의 컵을 집는 건 나쁘단다. 그러나 옳고 그른것 중에서 옳은 것을 택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훌륭한 것을 알고 나는 정말 행복하단다. 너는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



● 매!매!매!

“루돌프야, 너 어디 갔다 왔니?”  
하얗고 커다란 염소가 길을 따라  
다가오자 마누엘이 소리 쳤다.

루돌프는 대답 대신 더욱 맹렬하  
게 빨간색과 오렌지색 줄무늬가 진  
천을 씌고 있었다.

“루돌프!” 마누엘은 두려운 마  
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네 입에  
있는 게 뭐냐?”

그러나 마누엘은 줄무늬가 진 그  
천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옷  
소매였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은 마을에 한 사람이 있을 뿐  
이다. 세노 멘도자라는 사람이다.

“오! 오! 오!” 마누엘은 고통  
스런 신음을 했다.

들에서 일을 하던 세노 라모  
스, 마누엘의 아버지가 달려 오셨  
다. “왜 그러니 마누엘?” 그는 이  
렇게 물으셨다.

# 루돌프라는 염소

로세리 더블류. 도스

세노 라모스, 마누엘의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소리 치셨다. “마  
누엘, 나의 아들이, 어디가 아프  
냐?”

마누엘의 누이 테레사가 파란 고  
추를 실에 매달린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오면서 또 소리 쳤다. “무슨 일  
이야?”

마누엘은 아무말도 없이 루돌프  
의 입에 매달린 소매 자락을 가리  
킬 뿐이었다.

세노 라모스도 이웃 사람의 옷을  
알아 보았다. 그는 이렇게 소리 쳤  
다. “루돌프야 이게 무슨 것이냐?”

“저놈이 세노라 멘도자가 강에서  
빨아 바위에 넣어 놓은 것을 가져  
왔을 거예요.” 마누엘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쁜 염소야 이놈아!” 테레사  
는 염소를 향해 손가락을 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루돌프는 눈 한번 깜박이  
지 않았다. 계속해서 빨갛고 오렌  
지색이 나는 옷 소매를 씌기만 했  
다.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만 탓하지  
마라.” 마누엘의 아버지가 말씀하  
셨다. “마누엘이 저 염소를 잘 매  
두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  
을 게 아니냐?”

“저는 염소를 잘 매 둔 걸요.” 마  
누엘이 열린 대답했다.

테레사는 루돌프가 매어 있던 나  
무 쪽으로 갔다. 그는 아직도 거기  
떨어져 있는 로프 동아리를 집어 들  
었다. “루돌프가 입으로 씌어서 끊  
었어요.”

라모스 가족 넷은 서로 근심에  
싸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 보았다.  
자기들의 소유인 동물이 이웃 사람  
의 재산을 망쳤으니 큰일이었다.

드디어 마누엘이 입을 열었다.  
“아마 세노 멘도자는 옷을 망친 놈  
이 루돌프라는 걸 모를 거예요.”

세노 라모스는 아들을 준엄한 얼  
굴로 쏘아 보면서 말씀하셨다. “그  
렇지만 너는 알지 않니!”

마누엘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머  
리를 숙였다.

“세노 멘도자에게 모두 얘기해 주  
어야 한다.” 마누엘의 어머니도 말  
씀하셨다. “그는 언제나 친절할 이  
웃 사람이 있어. 우리 추력이 고장  
났을 때는 우리 농작물을 마을까지  
실어다 주고도 돈도 받지 않았단 말  
야.”

“내가 아팠을 때는 말야.” 테레  
사도 거들었다. “세노라 멘도자는  
나한테 아주 맛있는 국을 끓여다  
주었던 말야.”



“이웃을 바로 대접해야 이웃이 우리를 바로 대접하는 거란다.” 마누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마누엘은 기어들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루돌프를 관리하는 게 내 책임인 줄 알아요. 세뇨 멘도자의 옷은 제가 물어 주겠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 걸요.”

세뇨 라모스는 주머니를 다 털었지만 전 재산은 일 센타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아,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돈이라고는 옥수수가 익을 때까지 이것이 모두야.”

마누엘의 어머니와 테레사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루돌프가 망치는 옷을 살만한 돈이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누엘이 절망에 찬 얼굴로 소리 쳤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방법이 뭔지 알겠어?”

마누엘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세뇨 멘도자에게 루돌프를 주는 거군

요.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그걸 줄 수 있겠어요? 루돌프는 제가 아끼는 친구고, 또 내가 기르지 않았어요?”

“내 심정도 그렇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니?”

마누엘은 슬픈 표정으로 루돌프의 목에 남은 밧줄을 찾아 냈다. 그리고 천천히 루돌프를 물고 멘도자의 집으로 갔다.

마누엘은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는 나무 그늘로 뛰어 들어갔다. 슬픔이 온 몸으로 밀려 왔다.

루돌프는 근처에 조용히 비켜 서서 풀을 뜯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그토록 무심할 수가 있니?” 마누엘이 소리를 질렀다. “멘도자는 분명히 너를 장애가서 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작별일 텐데.”

“매! 매! 매!” 루돌프는 코나 팔을 붙면서 먹던 풀을 즐겁게 씹어댔다.

마누엘은 다른 해결안을 모색해 보았다. 루돌프를 데리고 도망을 칠까? 그러나 곧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마누엘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냥 그대로 그곳에 있다가 세뇨 멘도자가 집에 없더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 거





깃말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니까.

“가자 루돌프, 끝장을 내고 보자.” 마뉴엘이 말했다.

세노 멘도자는 마뉴엘이 도착했을 때 뜰에서 닭모이를 주고 있었다.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마뉴엘은 급히 이야기를 했다. “세노 멘도자 씨, 여기 루돌프를 데려 왔어요. 가지세요.”

세노 멘도자는 분명히 놀란 얼굴이었다. “내가 왜 루돌프를 가져야 하니?”

마뉴엘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루돌프가 선생님의 빨강고 오렌지 색깔 나는 무늬의 셔츠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셔츠를 사드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돌프를 대신 가져 왔습니다.” 마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간색과 오렌지색 무늬 셔츠의 나머지 부분을 치켜들었다.

세노 멘도자는 크게 웃었다. “그 셔츠는 옛날에 내가 아껴 입던 옷이지. 너무 오래 입어서 여러 조각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추력을 고칠 때 그 옷 조각으로 기름을 닦았거든. 아마 루돌프란 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옷조각을 가져 갔을 거다.”

“그러면 그 셔츠가 전혀 쓸모가 없었던 말이지요?” 마뉴엘은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 마뉴엘. 너는 나한테 새 옷을 사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루돌프를 집으로 데려가서 더 단단히 잡아 매 두거라. 다음 번에는 일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마뉴엘이 말했다. “그렇지만 루돌

프는 아무리 단단한 밧줄이라도 입으로 씹어 끊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진 걸요.”

“그런 문제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있지.” 세노 멘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까이 있는 헛간으로 들어가 길고 가벼운, 그러나 튼튼한 쇠줄을 가져 왔다.

“이 줄로 루돌프를 묶어 버릇을 좀 가르치려므나. 아마 그놈이 이 줄은 씹지 못할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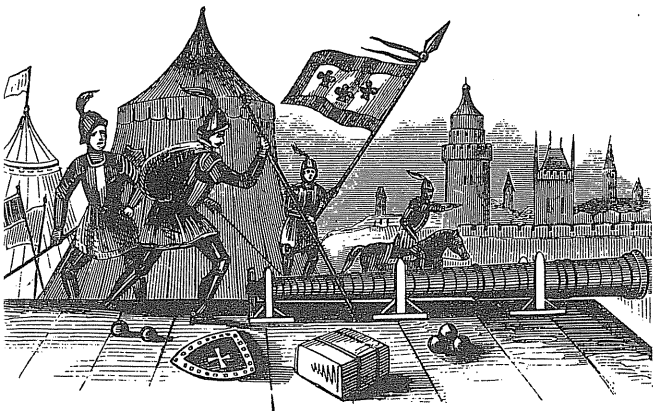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세노 멘도자.” 마뉴엘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뉴엘은 루돌프에게 말했다. “아빠 말씀이 옳았다. 우리가 이웃에게 정당하게 행동하면 이웃도 우리를 정당하게 대접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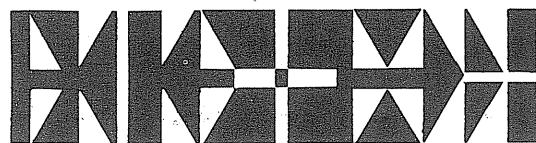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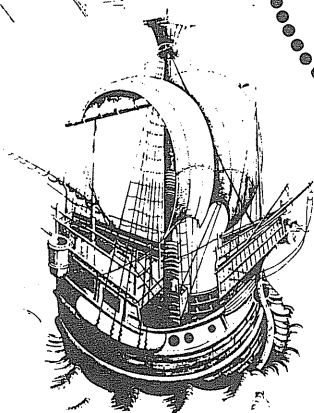
“매! 매! 매!” 루돌프는 소리를 질렀다.

이 장난꾸러기 염소는 마뉴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껄여 보는 것인가? ○





# 리마 빈스



## 집 짜딘(15세 때의 기록)

● 리마 빈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다. 중요하다. 건강에 이로우니까. 그렇다. 누군가가 그걸 준비하느라 애를 썼으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곧 자제력의 훈련이라는 것이다.

정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1842-1910)는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마 빈스를—아니 우리가 싫어하는 기타 음식을—먹으므로 우리는 조금씩 자제력의 훈련을 쌓는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우리는 어머니나 누이가 방으로 들어 올 때 의자를 내 드리지 않으려 할지도 모르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훈련을 쌓으므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더 큰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멋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도 있는 날이면 학교 숙제에 손을 대기가 이만

저만 싫은 것이 아니지만, 늘 규칙적으로 숙제를 잘 하다 보면 학교 성적도 좋아지고 대학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더 큰 직책을 맡고도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을 읽을 때는 흔히 우리는 만화나 스포츠란을 뒤진다. 재미가 없더라도 사실관이나 좀더 심각한 의미의 기사를 읽도록 하자. 책의 선택에 있어서도, 비록 어렵고 원하지 않는 때라도 깊고 큰 의미의 책을 읽도록 하고, 아무나 읽는 흥미 위주의 책은 한편으로 치워놓도록 하자.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종류의 책에 흥미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전의 연구와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주머니에 돈푼이나 있으면 뭐 시원한 것이라도 마실 생각이 나겠지만 이러한 일시의 만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돈은 저축할수록 좋다. 동전 한푼 정도는 저축과 연관조차 하지 않으려 하지만, 저축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기금을 준비하고, 금식기금을 내며,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게 되며, 돈과 인생살이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금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식의 원리에서 우리는 식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벡케이 전 대관장님은 금식이 오직 성품의 발전만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가 금식의 충분한 값이 되기도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훈련시키므로서 우리는 마침내 견고한 갑옷을 준비하게 되며, 평생을 두고 사탄의 권세가 그 갑옷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

# 하나님의 완전한 갑옷을 입으라

헤럴드 비. 리  
대관장단

●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11-12)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필사의 싸움이 충기와 비행기를 동원하는 인간과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어찌면 식별하지도 못할 어두움 중에 있는 적에 대한 것임을 설교하셨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인간이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네 부분의 갑옷을 일일이 설명하셨고, 사탄과 그의 군사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점도 경계하셨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4-15, 17)

진리로 허리를 띠고 동이고 덕을 행하면 능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무서운 적의 하나인 도덕적인 타락을 진리가 어떻게 막아낸단 말인가? 주님께서 진리는 곧 지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 (교성 9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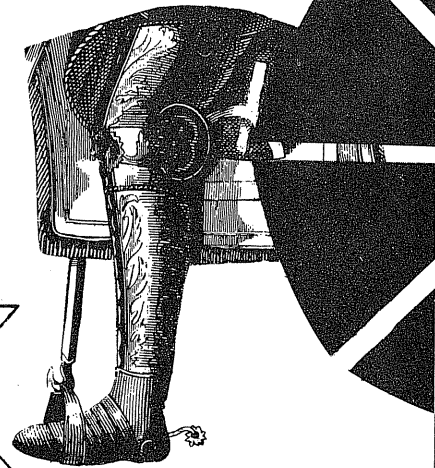
스스로를 합당하게 준비하여 신전에서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의 성약을 맺는 자는 영원히 계속될 해의 영광에서의 가정을 이루는 머릿돌을 놓는 것이다. 이들의 보상은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는 것” (아브라함 3:26)일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때로 삼을 진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헛된 인간의 가르침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해당할 때에 결혼의 거룩한 목적이나 영원의 전망은 거짓 인간의 간계로 인하여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지켜줄 가슴판은 어떤가? 물론 이것은 의로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며 자기의 계엄과 잘못을 매일 뉘우쳐야 함을 안다.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살며, 그리하여 하루가 끝날 때는 손에 얻은 결실이 자기의 최선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안다. 그의 몸은 과도한 노력으로 인한 피로의 짐을 지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젊은이의 어리석은 판단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는 늘 맑은 비존을 갖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살며, 강한 욕심을 갖는다. 그의 의로움의 가슴판은 그에게 철갑의 힘을 주며 그것은 그의 마음이 순결한 까닭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향한 발걸음은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준비는 승리의 길이며 “영원한 경계는 안전을 보상으로 가져 온다.”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그 보상으로 얻는다. 말로 하던가, 노대로 하던가, 욕심의 전쟁이거나 도덕의 전쟁이거나 간에 승리는 준비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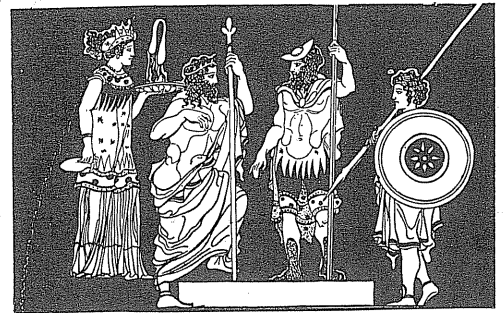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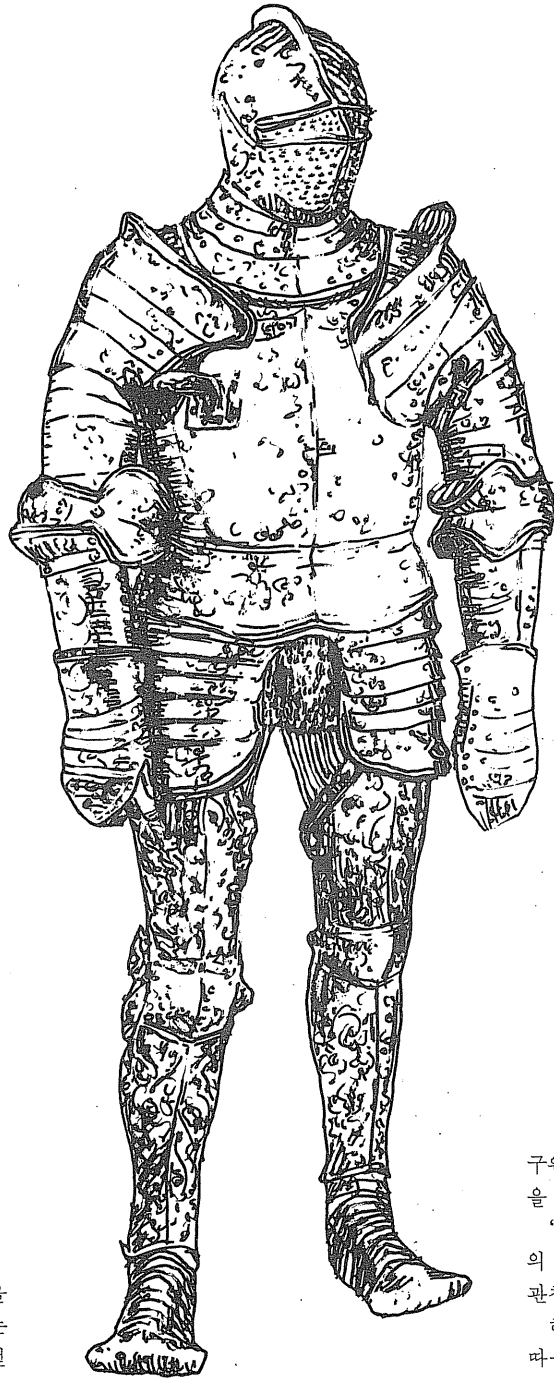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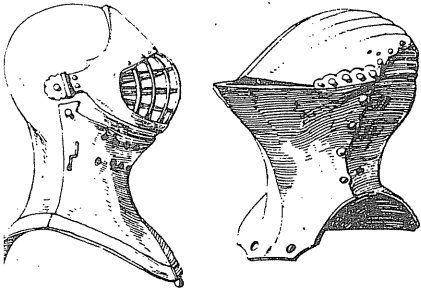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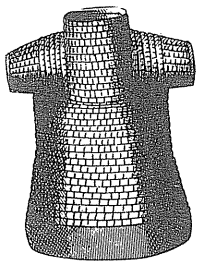
이제는 예언자 선생이 들렸던 마지막 갑옷을 보자. 우리는 머리에 투구를 쓴다. 우리의 머리, 즉 이지는 온 몸을 다스리는 부분이다. “매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7)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적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을 좌우케 하는 우리의 머리를 잘 보호해야겠다.



우리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이어야 한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 합당한 자가 보상으로 얻는 것인 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음을 뜻한다. 구원을 우리 마음의 최상의 목표로 하여 우리의 온갖 사고와 행동을 우리의 머리가 영광스런 영생에 부합





하는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영원한 삶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가장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치열했던 경쟁에 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전쟁과 파괴로 인하여 미래가 침범당하여도 깊이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늘 이기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빛을 던져 버리지 않는다.

살인의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성적인 범죄를 면하려면 마음에 불결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도적질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탐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또한 모든 유혹에 이기려면 늘 내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유혹을 정면에서 퇴치해야 한다.

“인생의 싸움”을 이기려면 용기와 결단과 계속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온갖 갑옷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싸움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좇아야 할 줄로 믿는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6-17)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함께 조화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신앙의 뜻에 따를진대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온갖 가르침이 비록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를 준비하고 다듬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울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하며, 꺾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 하며,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 (고후 4:8-9)할 것이다.

시온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갑옷을 입으라! ○

# 너희의 태도가 곧 너희의 갑옷이라

닐 맥스웰

● 유혹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늘 우리들  
에게 손을 뻗치고 있으며, 우리가 죄를 대  
하는 태도에 따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작  
용한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으  
로 죄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유혹의 마수에 걸린다. 우  
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정시하며 하나  
님의 관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

간을 극복하는 갑옷을 입게 된다.

구약성서에 소개되는 인물 두 분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유혹에 대처하느냐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다윗과  
요셉이다. 두 분 다 선택된 사람이었다.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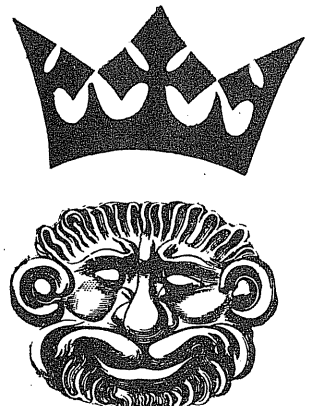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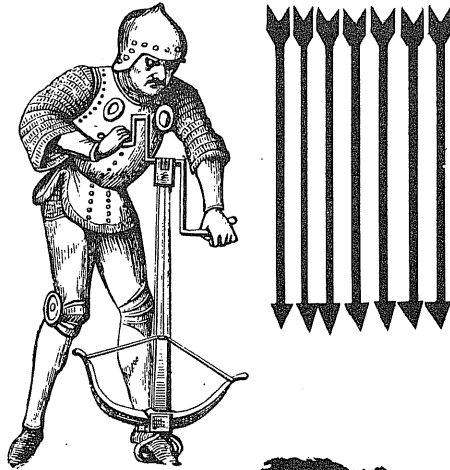
분 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재능의 소  
유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유혹의 대  
상이 되는 인간이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  
였으나 그는 인간으로의 속성에 이끌려 행  
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다.”(사무엘하  
11:3) 그리고는 너머졌다.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심복인 우리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배늦은  
것이였다. 그는 마침내 죄행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우리아를 죽도록 계책을 꾸렸다.  
다윗이 이와 같이 범법하므로 해서 화려하  
던 그 개인의 사적에 중지부름 찍었던 것  
이다.

요셉은 “매일매일” 그 주인의 아내되는  
여자의 유혹을 받았으나 두 가지의 방법으  
로 이를 물리쳤다. 그는 자기 주인의 선함  
을 “내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창  
세기 39:9)하며 기억했을 뿐 아니라, 하  
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단  
한 결심을 하였다. 둘째로 그는 자기가 생  
각하는 진리의 사실을 믿고 사실에 충실하  
면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이 할 수 있는 영단을 내려 범법치 않고자  
“자리를 피하였던”(창세기 39:9-12) 것  
이다.

우리가 만일 죄를 대인 관계에만 연결한다  
면 합리화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리  
하이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교회  
회원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복음을 받아들  
이는 자를, 조롱하는 세상의 압력을 (니일 8:  
27) 그렸다. 리하이에 의하면 인간은 복음  
자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까닭에 복음을 부  
끄러워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  
을 직시하여 죄를 지으므로서 하나님을 아  
프게 하는 일은 금해야 겠다고 굳은 결의를  
하면, 우리는 자세와 결의로 새로운 갑옷을  
입고, 인간사와 순간적인 유혹을 던고 넘어  
자유의 영역으로 달려 갈 것이다. ○



# 오늘과 영원을 위하여

교리와 성약 132:18 참조

더블류. 글렌 하몬

● “오늘과 영원을 위하여.” 자못 시적인 정취가 돌는다. 사람의 귀를 울리고 더 큰 소망과 바람을 갖게 하는 성스러운 음악의 가락과도 같다. 아울러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깊고 넓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승영과 영원한 발전의 열쇠가 되며, 지상에서 행하는 가장 높은 복음의 의식이 되는 영원한 결혼 의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과 “영원”이라는 두 낱말의 상관 관계를 주목해 보자. 이 두 낱말에는 오늘과 영원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상호 연관 관계의 모두가 정의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다. 1843년, 영원한 결혼 의식에 관한 계시가 전달되었을 때, 이 세상의 기독교계에는 사망 이후의 남녀 결혼 관계라던가, 죽음 이후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결혼을 교회의 일곱 성찬의 하나로 중시하는 카톨릭교에서도 결혼은 사망과 더불어 종식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sup> 신교에서는 과거에 있어서—현재 까지도—결혼은 “죽음으로 둘이 헤어질 때까지”만 유효한 하나의 사회 약속인 것이다.<sup>2</sup>

오늘날 근대 계시에 비추어 보고, 또 실제로 그 계시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125년간의 경험에 의하건대, 아니 역사를 통하여 가족 관계가 인류 문명의 가장 핵심의 요소였다고 하는 산 역사의 증거를 놓고 볼 때에, 어찌 결혼을 이 세상에서만 존속하는 한정된 기간내의 약속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오늘과 영원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집에서 맺어진 결혼 의식이 세상의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엄숙하게 증거한다.

## 때를 맞춘다는 것—우주의 원리

시간을 맞춘다는 언어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한의 요소는 현재다. 현재의 “시간”이란 개념을 인본의 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나는 영원의 한 조각이다. 현재와 영원을 통한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결혼을 해야하며, 그 결혼은 우리가 유한의 생명을 갖고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말하자면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이루어 놓아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때를 맞춘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로만은 강조할 길이 없다. 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그것과 연결되는 그 이후의 시간에 결과를 남긴다. 아울러 인생의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건은 그 다음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곡식을 심고 가꾸는 농부는 이러한 원리를 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적기에 미리 잘 준비한 땅에 씨를 심어야 하고, 계속하여 물을 주며 가꾸어야 한다. 최선의 결과를 원할 때에는 이상의 모두를 적기에 하고, 거두어 들일 때에도 때를 맞추어야 한다. 때를 맞추어란 성공과 실패가 연결된 우주적 행함의 원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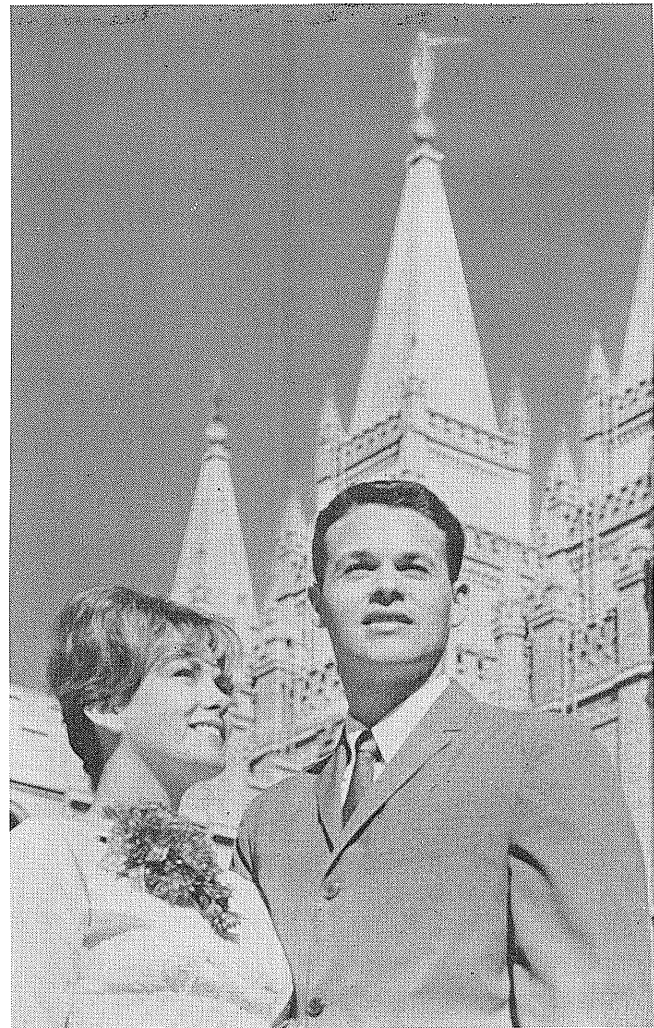
## 모두를 위한 시간

때를 맞추지 못했을 때의 참담함에 대하여는 세계 대전을 두고 “너무 적고 너무 늦다”는 새로운 말귀를 탄생케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sup>3</sup>는 때를 맞춘을 두고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인생사에는 반드시 기복의 물결이 있다. 그 물결을 잘 타는 자는 행운을 얻고, 물결을 타지 못하는 자는 얕은 물에 묶여서 번번히 항해도 해보지 못한다.”<sup>4</sup>

성경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침묵의 웅변을 듣는다.



1. 새 카톨릭 백과사전 (1967) 제9권, 213페이지.  
2. 아메리칸 백과사전 (1932) 제18권, 313페이지.  
3.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1616, 영국 극작가.  
4. 줄리어스 씨자, 4막 3장, 218행.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 : 1—4, 8)

인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다음, 만일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모든 것(음식, 의복등)을 그 위에 더하라.”(마태 6 : 33)고 하신 것이다.

때를 맞춘의 원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에 앞서 천국회의에서도 암시된 것 같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 3 : 24—26)

## 더하여 집

물론의 교리로는 “첫째 지체”란 인간의 전세의 상태를 말하고 “둘째 지체”란 지상 생활을 뜻한다. 첫째 지체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있을 동안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격 사항이 무엇이었느냐에 관하여는 기억을 박탈당한 우리로서는 생각해 낼 방법이 없으며, 우리가 기억을 박탈당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철저한 훈련을 위한 지혜로운 뜻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영의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남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의로 거룩하신 이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시험을 개별적으로 받았으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둘째 지체로 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무엇인가가 “더하여 질” 수 있을 상태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을 숙달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은 대학에 학위를 얻기 위한 절차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작업의 수고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둘째 지체로 옮겨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더하여질 준비를 갖추었다는 증거요, 첫째 지체로 있을 동안 많은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상은 출생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영이 안주할 살과 뼈의 몸이다. 이 몸을 갖고서야 영은 영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발전은 영의 세계의 것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영이 육신을 움직이는 법을 배울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육신을 온전히 통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영적인 목적이란 이미 우리가 영으로 있으면서 배운, 몸을 갖지 않았을 때의 높은 목적이라 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의 목적을 우리의 영과 육신의 다스림 아래 둘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둘째 지체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영원을 두고 무엇인가가 “더하여 질”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 남과 여

영이 육신을 다스려야 하는 투쟁에 있어서, 성의 문제 만큼 중요하고 범세계적인 문제거리의 없다. 성의 관계는 인류의 번식과 종족 지속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토록 중대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실패, 즉 순결의 법에 있어서의 실패는 영원한 영광의 상태를 외면한 깊은 물락을 가져 오게 한다.

결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만큼 남녀의 관계가 합당해야 하며, 신전 결혼의 법은 “영원히 영광이 더하여 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상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채 그 놀라운 상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기에—알맞은 때에—성약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후에란 너무 늦음을 뜻한다.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는 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완전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교성 132 : 6)

영이 육의 횡포와 격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허가되는 시간은, 둘째 지체의 기간 동안이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녀로서 해의 영광의 성약을 맺어야 한다.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가 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 봉사하는 종이니라.”(교성 132 : 16)

이와 같이, 해의 영광의 성약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를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육신은 “둘째 지체”인 이 세상을 그 무대로 한다. 둘째 지체를 갖는 목적인, 영으로 하여금 육신을 다스려 육이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는 데 있다. 영원한 발전이 가능한 것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영역인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 6 : 63)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의 영이 얼마나 육신을

다스려 영적인 목표에 이끌어 들이느냐에 연결된다. 경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다(요성 29:34, 35 참조)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영적인 자질을 기르는 훈련을 쌓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바탕이 되는 사랑과 통일과 조화를 기르는데 있어서 가정보다 더 훌륭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

주님의 집에서 배에 알맞는 성약을 나누고, 합당함을 적시에 보여준 “오늘과 영원을 위한” 결혼은 이 위대한 법을 지키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입증하는 증거다. 그 위에 얼마큼 자기들이 충실하느냐에 따라 “영광이 영원토록 저들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이다” ○

# 주 일 학 교

## 9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 10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 장년 주일학교

24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 유년 주일학교

4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 10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 장년 주일학교

로마서 1장 16절

### 유년 주일학교

마태복음 5장 8절

## 10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 기초 교리반

갈라디아서 1장 6절~8절

### 복음의 멧세지반

고린도전서 15장 21절~22절

# 번영에 대한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일찌기 인류 역사에는 없었던 생활의 표준을 향유하고 있다.

현대의 표준으로는 비록 궁핍한 자라도, 전세대의 표준으로 보면 부유한 것이다.

역사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상태는 때때로 급속히 변한다는—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시대의 번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물질적으로 풍성하던 전세대 앞에 제시되었던 똑같은 유혹에 당면해 있다. 물몬경에는 물질적인 번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의 역사는 물질적인 축복을 헤아리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야겠다. 진실로 축복이란 단어는 축복 그것이 자칫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까닭에 주의 깊게 사 용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주의하지 않으면 번창은 정성과 도덕의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물몬경의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이다.

모든 다른 여건이 같을 때, 물질의 풍요함은 인생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물질의 번창과 정신적인 의로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의 가능성에 대한 주의 를 절대로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니파이인들이 번창할 때 저들을 사로 잡았던 유혹에 이끌렸던 역사의 자취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

번창함은 때로 인간을 덧없고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은 자기의 부로 인하여 교만을 부리는 유혹에 빠진다. 이러한 사태가 예수가 나시기 몇해전 니파이인들에게 벌어졌었다.

“치세 오십 이년도 역시 평화롭게 지나되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든 교만이 크게 자랐으니, 이는 저들의 엄청난 재물과 땅의 번영으로 인함이다. 실로 저들은 날로 번영하였더라.”(힐라맨서 3 : 36)

번영 그 자체는 사람의 품격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인간의 재물과 성품의 고귀함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어쨌든 물질의 번영은 헛된 우월감을 불러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사람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잊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 갖는 교만의 유혹은, 자기

들이 하나님과도 관계를 갖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내와 보호가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으며 주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주가 그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실 때에는 농작물과 양과 소와 금, 은 등 온갖 종류와 모양의 귀중한 물건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저들의 목숨을 보호하시어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해 내시며, 원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백성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시나니, 그러하실 때에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밟아래 짓밟나니, 이는 오히려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는 때문이라.”(힐라맨 12 : 2)

하나님과의 유대 및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불행하게도 물질적인 번영은 사람의 자기 과대 평가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품의 결핍과 직결되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니파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참으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것으로 하여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재물만을 생각하여 이를 주신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아니한 지라, 너희 마음이 주께 부풀어 올라 뿔내며, 득의만만하며, 시기하고 다투며, 원망하며, 핍박하며, 살인하며, 온갖 간악한 짓을 행하는 도다. (힐라맨 13 : 2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의 번영이 곧 신앙적인 상실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도 많다. 니파이인의 역사는 불행한 결말을 알려주고 있다. 신앙과 근면으로 열심히 주께 봉사한 세대는 그 노력한 만큼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가능하게 한 노력의 열매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덧없게 만들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을 축복해 준 그 신앙을 잊게 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절

# 물몬경의 경고

존 더블류. 베니온 박사

차가 모두 한 세대에 일어난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두 세대나, 세 세대가 지난 다음에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한 유혹에 빠진 때도 있었다.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위험은, 인간 전체의 궁핍과 고난에 대한 방관과 무책임이라 하겠다. 우리의 세대에서나 물몬경의 세대에서나 많이 가진 자들이 반드시 그 소유를 남과 나누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물몬경은 이타성, 연민, 동정, 사랑 등이 결여된 부유하게 된 집단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재산이나 소유가 풍성할 때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과 원만한 교통을 한다거나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를 잃는 수가 있다. 엘마는 자기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교하였다.

“참으로 엘마는 백성들간에 큰 차별이 생기는 것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돌아보지 아니 하더라.” (엘마 : 12)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족할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없다. 자기의 임종을 눈 앞에 두었던 모로나이는 미래의 세대, 즉 우리의 세대를 포함한 미래의 세대가 물질적인 축복을 크게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또한 이러한 여건은 인간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치 니파이인들이 그랬듯이 잃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예견하였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우리들의 세대를 경계한 그의 가르침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겠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고,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보다 더 하는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 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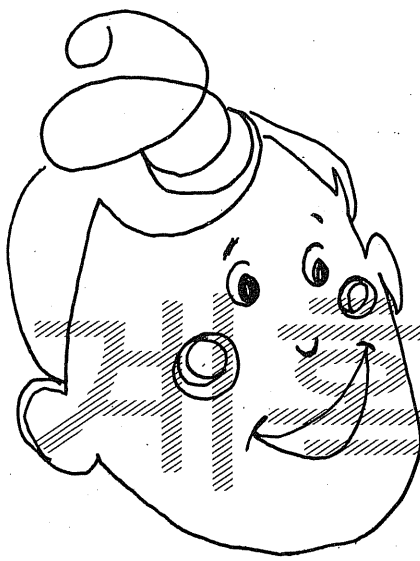
(물몬 8 : 37, 39)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풍성한 세대는 니파이인들의 도덕과 영적인 자세를 파괴했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을 대개 받게 된다. 물질의 번영은 인생을 물질의 각도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니파이인의 역사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를 우리들에게 역설해 주고 있다. 물질주의에서의 건전한 삶의 방편으로 우리는 십일조와 금식헌금의 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수입의 1/10을 십일조로 바치고 또한 선교사 기금, 교회 운영을 위한 기금, 궁핍한 자를 도와 자립하게 하는 기금 등을 바친다면 물질의 가치에 대하여 혼돈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물질을 단순한 생존을 연결하게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도덕과 정신력과 사회질서, 지성을 고취시키는 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십일조를 낸다면 기금을 내므로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더 많은 물질의 획득이나 육신상의 안락 이상의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십일조를 합당하게 낸다면, 결국 우리는 단순한 물질주의의 추구로만은 얻지 못할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교육사업, 선교사업, 교육여행, 훌륭한 음악, 유익한 공공사업 등에 돈을 사용한다면 끝없는 물질의 추구나 전혀 생명이 없는 곳에 돈을 써버리는 일보다 얼마나 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겠는가.

오늘날의 세계는 물질에만 의존한 채 크게 번성하고 있다. 소위 즐거운 인생이란 것을, 텔레비전의 광고에서는 보나 많은 물질의 소유와 세속적인 쾌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 넓고 깊게 퍼진 혼란, 약의 남용, 이혼 등은 물질의 번영으로 인한 위험이 이 세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물몬경의 가르침은 우리 세대를 위협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치유하는 강력한 치유제가 되리라고 믿는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 (교성 6 : 7) ○





반 학생들을 교회의 프로그램에 인도하여 훈련과 자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 책임

블레인 엔. 리



● 교실에서의 지속적인 문제거리는 학생들의 비행과 그 비행의 종식 내지는 변경을 위한 훈련이라 하겠읍니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방법을 응용해 본 교사는 이 방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임을 알것읍니다. 반에서 소란을 피우던 학생이 발견되어 끌려나오면 대체로 받은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만큼 시효도 짧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곧 자리에 돌아와 전과 같은 소란을 벌이는 게 상례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손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여러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교실의 질서와 순간의 제재 정도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소란을 부리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주일학교를 끝낸 다음에도 연결됩니까?

## 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

학생의 비행에는 사유가 따릅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데서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사유 및 재료는 선생, 주위 환경, 학생, 이 셋 중의 하나입니다. 선생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당황하거나, 경험이 없을 때, 혹은 영적으로 준비 되어 있지 않을 때, 교실이 너무 좁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교사 재료가 조잡하거나, 다른 학생이 떠들거나, 보조 재료가 합당치 않을 때, 학생이 배가 고프거나, 피로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비판적이거나, 잠이 올 때.

이러한 여건은 가르침의 이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곳에서 공과를 시작하더라도 배워야 할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주위 환경이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거나 간에 개개인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책임 및 선택—영원한 원리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책임감을 일깨워주셨읍니다.

“자유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야 말로 우

리 교회의 교리 중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sup>1</sup>

“인간 가족의 권리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온갖 그의 자녀에게 개별적인 자유 의지를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에서 인간이 향유하는 유산이며……이 유산의 덕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자기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추구하는 일, 하는 생활, 육신으로 있으면서 행하는 행동 등에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sup>2</sup>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려 할 때에는 이러한 영원한 율법을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율법이라도 깨어지면 “공의가 만물을 다스려 율법으로 심판”(엡42:22)할 것입니다. 어떤 법이라도 지키면 복을 받으니 이는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 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교성 130:20)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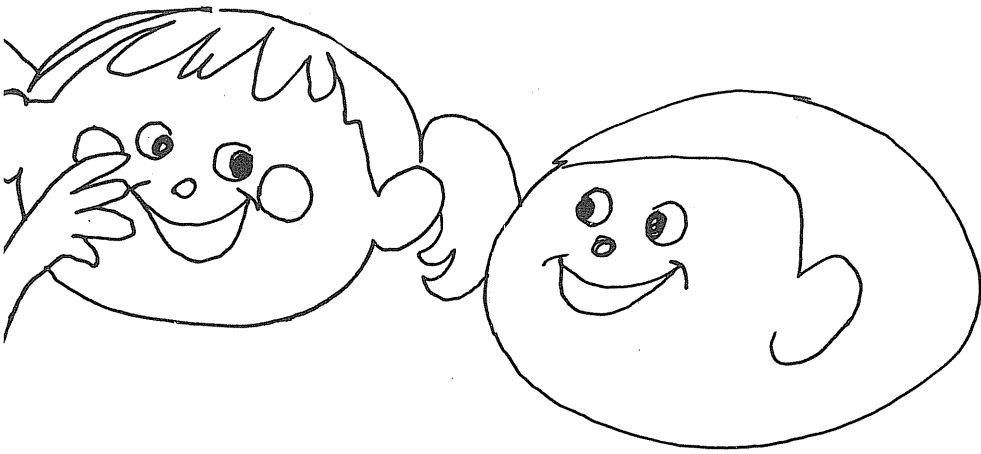
이 세상의 자연 법칙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니다. 높이 뛰어 오르면 다시 떨어집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죽읍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거나 거역하므로 해서 일어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위배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결과에 임하게 됩니다.

## 불의한 다스림과 그 퇴치법

이것이 주일학교나 훈련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실에서의 소란을 제거하는 법—관련 학생을 끌어내는 것—을 의론했읍니다. 이 방법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 천국 회의에 제의된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윌포드 우드럽, 밀레니얼 스타, 1889년 12월 12일  
2. 윌포드 우드럽, 밀레니얼 스타, 1889년 9월 1일



사탄이 제의한 비행 처리안은 간단했습니다. 비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안은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고 비행을 용납하되 인간이 선택하여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스린다거나 관리하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남과 대할 때 천국회의에 제의된 이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안은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며, 다른 안은 결과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지의 활용을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만일 교사가 “조용히 해!” 라고 하던가 “지부장님에게 메려가겠어.” 라고 하던가 “내 반에서는 떠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나가!” 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연 누구의 제의를 따르는 것 일까요?

학생의 의지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을 다룰 때 두가지 방법으로 응용될 것입니다.

첫째, 학생으로 하여금 반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자연적인 결과를 깨닫게 합니다. 현명한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나 일반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똑똑히 보도록 합니다. 학생이 정신을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들을 것이고, 참여한다면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소란을 부리면 온 반 학생이 배우는데 지장을 갖게 되며, 그가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선교사가 된다면 그 교사가 된다면 하는 미래의 발전의 기초를 상실하고 맙니다.

둘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합당한” 행동이란 그 행동의 결과가 학생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한가지 길은 한 반의 표준을 자의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 표준을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교사는 표준에 따라 행동하는 학생이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를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공부하기로 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복음을 공부하려면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되겠고, 공과를 공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소란을 피운다면 복음 공부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방해가 될 때에는, 반 학생 두 사람이 교실 밖에서 방해가 되는 학생에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반에 방해가 되는가를 설명하도록 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응책이라 하겠습니다. (이 보다도 더 심한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의 자유 의지를 행사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계획했고, 공과반의 진행 방법을 연구했고, 반표준을 세우기로 모두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만일 어떤 학생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미 반에서 정하여 공포한 바에 따라 그 학생을 제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사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러한 학생을 설득시켜 다시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차차 쌓게 되면 교사는 위협이나 강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사랑을 학생에게 보여 학생들이 선생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교성 121:43 참조)

### 진정한 가르침—사랑의 수고

위에 제시한 것은 반에서의 소란을 제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위의 방법은 손쉽고 빠른 시간내에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저들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제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려면 선생은 자기의 학생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학생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과 수고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학생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sup>3</sup> ○

3. (교성 18:10)

# 교회의 청소년에게

선교부장 서 헌 보



● 선교부 주최의 청소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새삼 한국의 젊은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며 귀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20년 후에 한국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활동적이며 충실하게 복음 안에서 배우며 성장하겠습니까? 교회의 제반사를 집행하는 방법을 익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능력, 재물을 십일조와 헌금으로 나누겠습니까? 누구의 손으로든 이행되어야만 할 교회 직책의 책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을 모두 긍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마법의 공식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편 24 : 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분이 모든 것을 주시니 우리도 그 일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공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하루를 보내십시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하루의 일이 잘 되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자신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하루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날을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의 다른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행복하고 유쾌하며 기억할만한 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훌륭한 날, 훌륭한 사회, 훌륭한 교회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저를 위하여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혹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힘과 능력, 지식과 용기를 허락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이러한 태도가 하루를 훌륭하게 만드는 길의 하나입니다. 훌륭한 날과 삶을 만드는 다른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만을 걱정합니까?

얼마전 자신의 직업에도 성공을 거둔 교회의 지도자에게 계속 교회에 활동적이 될 수 있었던 공식을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과연 어떠했던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솔트레이크 시 대표의 한 말일성도 어머니는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어머니와 경합하여 미세스 아메리카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공식은 “저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아주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녀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생의 가장 훌륭한 축복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는, 즉 하루를 훌륭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회원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사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공식은

“저는 언제나 근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 15시간씩 일주일의 여세를 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교회, 교육, 사회 및 복지활동에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근면을 통하여 우리는 인격, 능력, 확신, 재능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훌륭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야 합니다.

사업가, 전 미시간 주지사, 현 닉슨 내각의 도시 주택 장관, 전 스테이크 부장으로 유명한 조지 롬니 형제도 같은 질문을 받았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공의 가장 확실한 길은 현재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회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롬니 형제의 목표는 현재의 일을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 하므로써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간에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들 지도자의 충고와 인도를 받으십시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의 나날을 적극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을 받아 주십시오. 교회는 현재, 내년 아니 일생동안을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이끄시는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

# 방향을 바꾸지 않을진대

리차드 엘. 이반스

● “직선은 두 점을 잇는 최단의 거리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알맞게 변형된 주장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향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물론, 기업체나 사회나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향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다 깊은 부채의 길로 달음질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헤어내기 힘든 부채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은 건강을 잃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거나,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행복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탄을 안겨다 주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여 이처럼 저조한 상태를 초래케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며, 법을 어기며, 진실하지도 솔직하지도 않으며, 매일을 정직한 의미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방향을 계속 고집한다면, 마침내는 그런 것들이 인도하는 곳에 싫어도 도착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힘써 배우고,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알아야 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현재 가고 있는 곳에 도착하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고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든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하여도, 우리의 내부에 배우고, 회개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실제로 바꾸어 보는 데서 비롯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방향을 바꾸어 이전의 행동을 떠나 바른 길로 들어서는 데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향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문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